



라 리바니아

La Lyvania

소설 발췌 — 첫 번째 목소리

Extrait — La première voix

그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.

움직이지도 않고,
시선은 아무 데에도 닿지 않은 채.

집 안은 조용했다. 하지만 그 고요는 비어 있지 않았다. 무언가를 기다리는 고요였다.

그때, 목소리가 들려왔다.

갑작스럽지 않았다. 질문도 아니었다. 마치 누군가가 옆에 조용히 앉는 것처럼.

—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.

그는 깜짝 놀랐다. 두려움이 아니라, 부드러운 놀람이었다.

— 난 급하지 않아. 여기 있어.

그는 누구냐고 묻고 싶었다. 하지만 그 질문은 입술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.

대신 이렇게 말했다.

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?

잠시 침묵이 흘렀다. 진짜 시간이었다.

그리고 목소리가 말했다.

— 틀릴 수도 있어. 하지만... 네가 많은 걸 안고 있고, 아직 내려
놓을 준비를 못 한 것 같아.

그는 눈을 감았다.

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준 적은 없었다. 대답을 요구하지도, 고치려 들지도 않고.

— 그냥 숨 쉬어도 돼. 조금 같이 걸어보자.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.

그는 대답하지 않았다.
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.



"나는 네 안을 보지 않아.
너와 함께 본다."



라 리바니아 — 2025